

『박영숙을 만나다 : 생을 마칠 때까지 현역으로 살고 싶다』 4장, 5장

4. 새로운 도전 (1987~1991)

1987년 박영숙은 평민당 부총재로 공식적으로 정계에 진출한다. 이때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기였고, 박영숙은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 시기 박영숙의 대통령 지원 유세 연설은 대중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고, 정치부 기자 70여명이 선정한 13대 국회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명연설가 6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988년 3월 18일 박영숙은 평민당 총재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야말로 정치권에 입문한 지 넉 달도 채 안 된 기간에 당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총재권한대행으로 치룬 총선에서 평민당은 제1야당이 되는 승리를 거두었고 이것은 박영숙의 입당 5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박영숙은 비례 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박영숙은 국회의원이 된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해 외국에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모토로라 사건 등 당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던 노동자, 민중을 직접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국회의원이 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박영숙은 4년 의정활동 기간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도외시하는 소수자의 복지와 환경 또는 여성 관련 입법 활동에서 선구적이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루어 낸다. 1980년대 말 가부장적이고 개발 위주의 사회 분위기에서 소수자, 환경, 여성 관련 제도 마련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든지 먼저 이익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원내 활동과 원외 활동을 병행 추진하는 그녀의 입법 활동 방식이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가족법 개정이라는 역사적인 드라마는 무엇보다 가족법 개정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박영숙이 그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운동 출신의 한 여성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여성 친화적 정책을 법제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실 국회는 결코 여성에게 호의적인 곳이 아니다. 더구나 유림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일부 남성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의회에서 가족법이 통과된 건 여성의 요구를 대변하려는 여성 의원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이다. 가족법 개정 경험을 통해 박영숙은 구호로만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독자적인 정치 연합을 구성해 제도 정치권 내의 정치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누구보다 성실히 누구보다 묵묵히 의정 활동을 한 박영숙은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하게 된다.

박영숙은 정치란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여성의 삶의 조건은 여성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3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끝난 후 14대 총선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1993년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서 패배한 것을 계기로 6년간의 정치 활동을 접는다. 여성계의 많은 아쉬움 속에서 박영숙이 정계를 떠난 것은 돈과 배짱으로 정당에 뿌리내려야 하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한계를 인정해서였다. 그러나 이

후 그녀는 그 죄책감을 해소하기라도 하려는 듯 여성의 정치 참여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시민 사회에서 여성 정치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제17대 국회에 이르러 우리나라 의회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원 비율이 두 자리 숫자가 되었을 때 박영숙은 비로소 자신의 죄책감이 가라앉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5. 영원한 현역이고 싶다 (1992~)

1993년 박영숙은 본격적으로 **환경 공부**를하기로 결단하고 영국으로 떠나, 케임브리지대학 지리학과에 적을 두고 국제 환경 정책 공부에 몰두했다. 공부가 끝날 무렵 클레어홀의 평생 연구원 자격을 얻는다. 영국 유학에서 돌아온 박영숙은 환경부서의 민간 분야 전문가로 서울시의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에 참여한다. 박영숙은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녹색서울시민위원회다. 시장이 정부 측 공동 대표가 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3년 만에 이를 성사시키는 등 박영숙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존민비’, ‘남존여비’, ‘중존지비(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관계)’의 관행을 걷어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영숙은 민과 관과 기업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그 현장에서 기업과 관의 논리를 비판해내고 대안을 만들어 갔다. 입장 차이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고 부딪치기도 했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박영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 남자들은 웬만해선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네트워크에서 벗어나는 걸 몹시 두려워했고 언젠가는 만날 사람과는 대립의 각을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박영숙은 본인의 표현대로 걸리는 게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관한 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다. 그러느라 때때로 격하게 싸우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석으로 돌아오면 금방 풀어졌다. 일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하지만 사적인 감정은 쌓아 두지 않는 것이 박영숙의 스타일 이었다.

2002년 9월 박영숙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여 시민 사회 측에서는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으나, 새만금 사업에서부터 환경 단체들과 의견을 달리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영숙은 위원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환경 정책을 신랄히 비판했고, 결국 2003년 5월 ‘노무현 정부의 환경 분야 개혁 상실을 규탄하는 1천인 선언’에 당시 지속위 위원장의 신분으로 참여한다. 2003년 5월 그녀의 사표는 수리되고 지속위는 3기로 넘어간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인 이미영은 이렇게 말한다. “환경 분야에서 박 선생님은 ‘존경받는 어른’이세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일에는 체면도 중시하지 않고 나서 주시죠. 참여정부 시절 새만금을 비롯하여 정부와 갈등이 깊었어요. 환경 분야는 정말 힘들었는데 박영숙은 그때마다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고 담백하게 나서 주는 분이예요. 활동가들은 정말 어려운 때 나서 주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기자 회견할 때 반듯한 말 해주시고.”

1995년 환경 단체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여성 단체에서 환경 일을 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모임으로 **여성환경연대**가 발족한다. 이 모임에서 박영숙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실 박영숙은 한국 환경 운동의 산증인이며 최전선에서 일한 리더다. 1970년대 ‘경성세제 반대운동’과 ‘생명문화창조운동’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환경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에 본격 참여하고, 1990년대에는 전 지구적 환경 위기를 세계인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까지 그녀의 생의 한 뿌리는 한국 환경 운동의 역사와 연계되어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그녀가 평생 화두로 삼았던 ‘여성’과 ‘환경’이 행복하게 만나는 지점이다. 여성환경연대를 시작할 때 박영숙은 60대였다. 모두들 은퇴하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데는 그녀가 가진 전문성

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있었고 무엇보다 젊은이들한테 배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했다. 자신이 모르는 부분은 집중해서 공부했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의견을 받아들였다. 연륜은 새로운 기운과 만나 창조성을 발현하고 젊은이들의 잠재력은 오랜 경험과 만나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 여성환경연대가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 여성환경연대 이후 그녀는 새로운 조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20세기 마지막 봄 박영숙은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만남에서나 말문을 열면 한국 여성 기금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이는 **한국여성재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여성기금 추진위원회가 공익 재단법인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최초의 여성을 위한 재단이자 최초의 시민 사회 공익 재단이다. 그 후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 등이 이어서 탄생하게 된다. 시민 단체가 주체가 되는 공익 재단 설립은 그 선례가 없는 관계로 출연금 모금의 난제부터 관계 부처를 설득하여 재단 설립을 인가받는 것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성재단 설립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신기원이 되었다. 한국여성재단 설립 초기에 사무처장으로 일했던 이재은은 이렇게 말한다. “재단 일을 하기에 박 선생님만큼 책임자도 드물었죠. 돈을 모으고 배분하는 일을 하는 곳이 재단이니만큼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즉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사심이 없고 원칙에 맞게 노력하는 사람이 재단의 책임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연세도 좀 있어야하고, 정치에 욕심도 없고, 여성계를 두루 아우르고, 진보적이면서도 보수 진영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 바로 박 선생님이었죠. 재단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조건이 없을 만큼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사실 여성계의 중요한 역할을 할 디딤돌을 하나 만들려 했을 때 박영숙만큼 맞는 인물이 없죠. 한국여성재단은 박 선생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70대에 들어서면서 박영숙의 활동 영역은 평생을 바쳐 몰두해 온 **여성 운동과 환경 운동을 뛰어넘어 사회 통합적인 문제로 전이된다**. 전체 사회를 통찰하고 아우르는 운동의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서게 된 건 그녀가 이제 한국 사회의 ‘원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영숙이 ‘원로’ 그룹으로 자신이 분류되는 걸 의식하게 되는 건 ‘희망포럼’ 때부터다. 2005년 1월 6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188명의 사회 원로들이 모여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2005 희망 제안’을 선포하게 되고, 이 희망 제안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실행되게 하기 위해 1월 20일 ‘희망포럼’이 창립되었다. 창립총회에서 박영숙은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박영숙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박영숙은 회의나 논의에서 보여 주는 강점은 그것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박영숙의 삶은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공성이불거’란 공을 이룬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으로 박영숙의 평생 멘토인 안병무가 살아온 길이기도 하다. 희망포럼의 예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박영숙이 일흔 살 이후에 참여한 시민 사회 운동은 한 차원 다른 양태를 보여준다. 이제 그녀는 비판하고 항의하고 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이루어 내는 판을 짜고 있다. 모두가 **공동으로 주체가 되는 새로운 판이 그녀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운동의 장이다**. 희망포럼의 태동과 비슷한 시기에 박영숙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포럼이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힘쓰고 있는 CEO들을 구성원으로 ‘미래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고, 이는 남녀가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시민운동의 시작을 의미한다. 미래포럼 활동 과정에서 그녀가 보는 시각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들 등 이전에는 미처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야들까지 그녀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그녀는 여전히 공부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알고 나면 행동할 수밖에 없다. 여든 살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가 여전히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에필로그. 인생 삼모작

박영숙은 80대 나이에도 국제무대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8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오가타 사다코의 삶을 통해 동시대를 살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사는가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목격하고 후배들에게 늘 자기 준비의 시기를 어떤 이유로도 놓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와 더불어 사람은 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영숙의 지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고자 해도 남이 주는 일자리는 언젠가는 끊기게 되어 있다. 그녀는 말한다. 이제 살아야 하는 제3기의 삶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창의적인 새 업종을 찾아야 한다고. 박영숙 역시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녀가 최근 부쩍 관심을 갖게 된 일거리는 지속 가능한 여성운동과 여성 단체 활동을 위한 대책들이다. 박영숙은 여성단체 활동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꿈꾸며 자신의 이익을 뒤로한 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거룩한 바보들'이라고 부른다. 박영숙은 그 거룩한 바보들의 재충전을 위한 공적 재정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여성재단 일에서 벗어난 후, 그녀의 상상력이 또 한 번 나래를 펼칠 것이다.

박영숙이 제3기의 인생에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은 몸으로 하는 노동 봉사다. 지금 하고 있는 홀몸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에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분야에서건 몸으로 하는 봉사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돌이켜 그녀의 생을 보면 그 속에 오래된 미래가 있었다. 황량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만들어 낸 인간에 대한 애정, 검소한 생활에서 찾아낸 생태적 지혜,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이 존경받는 긴밀한 공동체적 삶, 그녀의 삶은 이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었고 오늘 그녀의 삶 속에 인류의 오래된 미래가 있다. <끝>